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등 일선 지자체들의 정치역 신설과 노선 경유 주장이 잇따르면서 호남고속철도가 '저속철'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합동 고역원 구간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리저리 휘고 도는 '선심공약' 선거에 발목 잡힌 호남고속철

대전지역 후보자들 "서대전역 경유" 주장 나주에선 "나주역 10회 이상 정차" 요구 분기역 10년 허비 ... 완공 시기 차질 우려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올해 말 완공예정인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다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입지자마다 자신의 지역에 정착역 신설이나 노선 경유를 주장하면서 자칫 '누더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노선을 경유하거나 역이 신설될 경우 시간 지체가 불가피해 고속철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역 신설, 노선 경유 논란 속에 정착 호남고속철도의 효율성 증대, 기능 강화, 재정적 지원 등은 논의가 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대전역 경유 시 운행시간 40여 분 늘어나 = 최근 대전지역 지방선거 출마후보자가 호남고속철도(KTX)의 상당 부분을 서대전역으로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이용객과 660만명 중 대전권 이용객이 190만명으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서대전역을 경유할 경

우 해당 구간에서 시속이 300km에서 그 절반인 150km로 감속할 수밖에 없다. 운행시간이 40분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금의 '저속철'과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광주, 전남·북은 오송역을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합의한 만큼 서대전역 경유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건설 전남발전연구원장은 "분기역을 결정하면서 10년 이상을 허비했는데, 또다시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호남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 정차 횟수 증설, 무안공항 경유 논란 = 나주 출신 전남도의원들

은 지난 3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나주 원도심을 연결하는 상생 발전을 위해 KTX가 나주역에 10회 이상 정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KTX 정차 횟수는 김제역 6회, 정읍역 14회, 장성역 8회, 송정역 12회인데 반해 전남의 교통요충지였던 나주역은 고작 4회밖에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일단 수요가 있어야 정차할 것이 아니다"며 "코레일에서 운영계획을 변경해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전남도가 지역의 핵심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의 경유역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지난 2012년 경유 논란 = 나주 출신 전남도의원들

간 시설을 검토 추진하기로 한 뒤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송정역 KTX역 일원화계획대로 추진 = 국토교통부는 '2011~2020 국가철도망계획'을 통해 이미 호남고속철도 1단계 종착역을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이 정책에 대한 변화는 없으며, 다만 광주의 반발을 감안해 광주송정역~광주역 간 셔틀노선을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 광주지역 내에서는 물론, 광주시와 국토부 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 돼 1단계 개통 이후 대환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원화는 바람직 하지 않으며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이미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논산순천소역과 세종역 신설 문제가 있다. 논산시는 매년 13만명 이상이 훈련소에 입소하고 군인



호남고속철 '저속철' 되나. 광명, 서울, 정부 기본계획 노선, 천안, 오송, 대전지역 후보자들 서대전역 경유 주장, 남공주, 익산, 정읍, 전남도변경안, 광주(송정리), 무안공항, 나주, 나주출신 도의원들 10회 이상 정차 주장, 목포(임성리).

및 가족, 면회객 등을 감안하면 이용객이 연간 130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훈련소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일단 국토부는 긍정적이다. 일부 노선만 경유하도록 하고, 정차시간도 3분 이내로 하면 전체적인 소요시간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근거하고 있다. 세종역 신설 문제는 조금 복잡한 양상이다. 세종시는 최근 발표한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에 KTX 세종역 신설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2단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맞물려 세종역 신설 논란이 일었으나 세종시가 이를 구체화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오송역과 불과 10분 거리에 세종역을 신설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충북의 주장이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6·4 지방선거 확대경 신당 창당 '쟁점 블랙홀'

정책대결 사라지고 정치논리만 난무

호남 '묻지마 투표' 우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제3차 대선 창당 선언이 6·4 지방선거의 기존 쟁점을 모두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돼가는 양상이다.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대결이 아닌 정치논리만 난무하는 선거로 전락할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아원의 신당 창당 선언 이후 ▲기초선거 정당공천 공약 폐지 논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접 선거 증거 조작 의혹 ▲기초연공 도입 논란 등 정치권을 달궜던 쉼한 쟁점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대선, 신당 창당 선언에 대한 해석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공세의 장이 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시급한 창당 일정을 감안하면 새정치 경쟁과 정책 경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치공방에

문허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호남에서도 갑작스런 신당 창당은 정책대결과 인물검증의 과정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광역선거후보 경선이 4월 중순 넘어 조급하게 치러지게 될 것으로 보여 차분하게 정책과 인물을 비교할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인지도와 조직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장 관계자는 "창당 작업을 서둘러 3월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공천을 협상 과정 등을 거치면 후보 경선은 빨라야 4월 중순에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때문에 경선후보 선결과 경선 방법 결정이 늦어져 조급한 경선이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조급한 경선 과정은 정책과 쟁점에 대한 치열한 후보 간 대결을 어렵게 해서 인지도와 조직이 약한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초선거의 경우는 신당 창당의 명분이 된 무공천으로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면서 현역 단체장에 맞서기 위한 후보단일화 등 정치논리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물 및 정책대결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의 바람을 뒤로하고 인지도와 조직에 앞선 현역 단체장에 절대 유리한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호남 유권자들에게 신당 창당은 '묻지마 투표'의 재현을 낳게 할 우려가 큰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이번에 호남 유권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격돌했던 지난 2004년 총선 때처럼 선택의 권한을 누릴 수 있었는데 또다시 '경선=본선'이라는 공식의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며 "야당의 통합이 수도권에서 승리 가능성을 높였지만 호남의 정치 발전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초선거 무공천에 후보 난립 ... "믿을 건 이름 뿐"

아이디어 짜고 또 짜내 이름 알리기

"믿을 건 이름 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 선언 등 광주·전남지역 6·4 지방선거 구도가 안갯속으로 치달으면서 후보들의 '이름 알리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은 자신의 독특한 이름을 최대한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이름을 각인시키는 후보들이 유독 많다는 점이다.

광주시교육감 고영을 예비후보는 최근 자신의 이름 덕을 토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한 차례 '엄마교육감'이란 캐치프레이즈로 선거를 치른 고 후보는 올해 '영원한 울이 되겠다'는 인사말로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자신의 이름 '영'자와 '울'자를 이용해, 교육감이 된 뒤에도 "울의 자제로 교육을 쟁기겠다"며 표심을 다지고 있다.

한때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던 '갑을' 논란 덕에, 고 후보의 이름을 쉽게 기억하는 유권자들도 늘고 있다.

이름을 이용한 후보들의 이색 책 제목도 등장하고 있다.

광주시교육감 김왕복 예비후보는 책 제목에 아예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왕복'과 오고 간다는 '왕복'(往復)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 '교육은 왕복이다'는 책을 냈다.

교육은 오고 가는 소통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과 '교육감은 (김)왕복'이어야 한다는 후보의 열망이 함께 제목에 담겨 있어 책이 주목을 받았다.

함평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노두근 전 강진부군수도 독특한 이름 덕을 보고 있다. 노 후보는 최근 '내 고향은 함평천지 새 희망에 두근두근'이란 책을 펴내며 '두근'이라는 이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잘사는 고향 함평을 만들기 위해 마음이 두근두근 설레고, (노)두근 후보와 희망을 꿈꾸자는 의미를 담았다.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한 배운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이름을 활용한

선거마케팅에 나섰다. 배 전 행정부지사는 '희망의 배를 띄우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자신의 성인 '배'자와 항구도시인 목포에 어울리는 '배'(선박)의 중의적 의미를 담아 목포 발전을 위한 책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신현구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도 이색 '이름 풀이'를 앞세워 후보에 나섰다. 그는 "신(新), 현(현재), 구(舊)라는 이름에는 미래, 현재, 과거를 아우르는 뜻이 담겨 있다"며 유권자의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입지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가 무공천이 되면서 입지자들의 경우 최대한 이름을 널리 알려 인지도를 높여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상해/항주/황산 4일	769,000
상해/항주/황산/삼청산 5일	869,000
상해/영파/신선거/설두산 4일	799,000
상해/설두산/신선거/주가각 5일	869,000
상해/곤명/석림/구항 5일	1,270,000
상해/장가계/주가각 5일	1,290,000
상해/계림/양삭 5일	1,140,000

※불포함사항: 여권 및 개인경비

인천공항 대한항공으로 떠나는

터키 1주 9일 ALL포함	3,190,000
베트남, 캄보디아 4박6일	990,000~

※불포함: 여권 및 개인경비, 유류할증료, 캄보디아 비자비

카멜리아로 떠나는 일본 히타 조이펜션 온천 여행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빌리지로 GO, GO!!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펜션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299,000
선착순 20명 히타 특급 전통 료칸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399,000

※불포함사항: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가짜단위, 관세환급비 (1명당1동체 드림니다)

카멜리아 내맘대로 자유투어 일본 큐슈 3박4일

189,000~

※불포함사항: 왕복선박비, 호텔2박

항공 일본고급 료칸 및 특급호텔 숙박!!

599,000~

※불포함사항: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가짜단위, 관세환급비 (1명당1동체 드림니다)

무안-장가계 전세기 3/28~5/30일 [월/금/일]

실속 장가계/천문산 4일 [금요일출발]	859,000
품격 장가계/천문산 4일 [금요일출발]	989,000
실속 장가계/천문산 5일 [월요일출발]	949,000
품격 장가계/천문산 5일 [월요일출발]	1,039,000

※불포함사항: 중국단체비(₩33,000), 유류세(₩93,000/2명기준), 기사요금(이동)

국내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69,000~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59,000~
홍도, 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20,000~

※불포함: 기사요금(이동)(₩10,000), 석식, 유류할증료(₩24,200), 현지식별관, 자유석식

유림 인천-터키 9일

1,990,000~

※불포함: 국내선 2회항공, 말리엔스 포함

광사이판 람, 사이판 골드 4/5일

899,000~

중국 홍콩/심천/마카오 대만/야류/화련

999,000~

중국 대만/야류/화련

999,000~

*당시는 관광진흥법 및 경쟁거래위원회 등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2-1호]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증금 가입(의정금 1만원, 국내수송 5만원, 관광진흥기금(기공, 공항 및 주차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비: 항공 및 선박, 전세버스/전차비 *상기 요금은 총액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서비스규약) 및 동행보험 반드시 합동해서야 가능합니다. *왕복항공권, 기사요금(이동), 숙박비, 식비, 기타비(비행료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

이름을 이용한 후보들의 이색 책 제목도 등장하고 있다. 광주시교육감 김왕복 예비후보는 책 제목에 아예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왕복'과 오고 간다는 '왕복'(往復)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 '교육은 왕복이다'는 책을 냈다. 교육은 오고 가는 소통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과 '교육감은 (김)왕복'이어야 한다는 후보의 열망이 함께 제목에 담겨 있어 책이 주목을 받았다. 함평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노두근 전 강진부군수도 독특한 이름 덕을 보고 있다. 노 후보는 최근 '내 고향은 함평천지 새 희망에 두근두근'이란 책을 펴내며 '두근'이라는 이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잘사는 고향 함평을 만들기 위해 마음이 두근두근 설레고, (노)두근 후보와 희망을 꿈꾸자는 의미를 담았다.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한 배운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이름을 활용한